

육설의 형성과정에 관한 소고

윤재학
(경희대학교)

1. 머리말

인간사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한 두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겠다.

(1) 아이들은 왜 불량식품을 좋아하나?

=>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몸에 좋은 거는 왜 맛이 없나?

(2)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는 왜 하기 싫은 거죠?

=> (다른 말로) 재미있는 거는 왜 인생에 도움이 안되는 거죠?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적, 경제학적 답을 제시할 수 있겠다. 우선 (1)에 대한 답으로는 좋아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이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2)에 대한 짧은 답도 역시 좋아하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의 경우에 생물학적으로 몸에 좋은 것이 맛있게 느끼도록 설정되어 있던 달콤한 탄수화물과 기름진 고기가 이제 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지나치게 풍부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음식의 과다가 신체에 해로우므로 맛없도록 설정되어야 하는데 진화과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반면 (2)의 경우, 인간

의 기본적인 성향 상 호불호는 유사하고,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수가 싫어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는 예외적인 일부가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학문제를 풀거나 청소하는 것을 즐기는 인간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괴짜 혹은 변태라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욕설언어를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혀 고상하지 않은 다음 (3), (4)와 같은 표현들에 관한 것이다.

- (3) a. Fuck you!
b. son of a bitch
c. nigger
- (4) a. 씨팔놈
b. 개새끼
c. 조센징

본 논문을 통하여 사회언어학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당연히 욕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욕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떤 어휘로 구성되며, 어떻게 변천하는가를 파악하기로 한다.

II. 욕설의 기능

사람들은 왜 욕을 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는 감정표출과 힘의 과시라는 두 가지 기능이 제시된다. 상대방 혹은 자신에 대하여 화, 좌절감을 표출하는 1차적 기능과 이에 따라 공격성과 위협의 추론을 통해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는 2차적 기능이 있다. 형태적으로는 분노와 좌절감의 표출과 상대에 대한 언어적 공격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대상으로 분류하면 행위자 자신에 대한

카타르시스 제공 기능, 상대에 대한 겁박 기능, 그리고 상호간의 관계적 기능으로 내집단 구성원 간의 유대감 고취 기능으로 확장할 수 있다.

분노와 좌절감의 표출로서 욕설행위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대표적인 욕설의 긍정적 효과로 거론된다 (김영규 1997, Jay 1992, 2000). 실제로 일련의 실험에서 욕설이 통증 진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tephens et al. 2009, Stephens & Umland 2011). 차가운 물에 손담그기 실험을 통해 피실험자가 욕설을 하는 경우에 건디는 시간이 40초가 늘어 50%의 증가효과를 나타내었다.

욕설은 상대에 대한 언어적 공격으로서 물리적 공격에 선행하는 겁박 혹은 물리적 공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른 어떤 언어표현보다 신속히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유효하다 (Jay & Janschewitz 2007, Potts 2007). 예를 들어 ‘Fuck you’나 ‘쌩새끼’는 발화자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신속성에서 다른 어떤 문장과 비교할 수 없다. 욕설은 또한 전달의 신속성 이외에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성을 마비시키는 효과도 있다. 욕설을 다루는 감정중추는 고차원 사고 및 절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닌 원시두뇌인 변연계(limbic system)이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반응을 보여 제어기가 힘들다. 이러한 특성은 운동경기에서 상대선수에게 의도적 욕설(trash talk)을 함으로써 상대팀의 경기력을 저하시키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2006년 월드컵에서 프랑스팀 핵심선수 지단에게 폭력을 유도하여 퇴장하게 한 마테라치의 욕설도 이런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세 번째 기능으로 내집단 구성원 간의 유대감 고취는 친한 친구끼리 반말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다. 욕설행위는 상대를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것으로 크게 보아 공손법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다. 공손법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상대에게 체면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표현을 쓰는 방식인데 (Brown and Levinson 1987), 욕설은 상대의 체면손상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공손법의 가장 낮은 단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욕에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욕이 가장 낮은 단계의 공손단계라 할 수 있겠다. Brown & Gilman(1960)의 권력과 연대(power and solidarity) 이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말, 낮은 호칭 등을 사용하여 공손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권력을 희생하여 연대감, 친밀감을 높이는데 기능을 한다. 욕설을 가장 낮은 단계의 공손법이라 한다면 가장 강한 친밀감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욕설로서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내집단 구성원 간에 사용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친한 친구끼리는 아래와 같이 심한 욕설도 허용된다.

- (5) a. 야 빙신아.
- b. Yo, nig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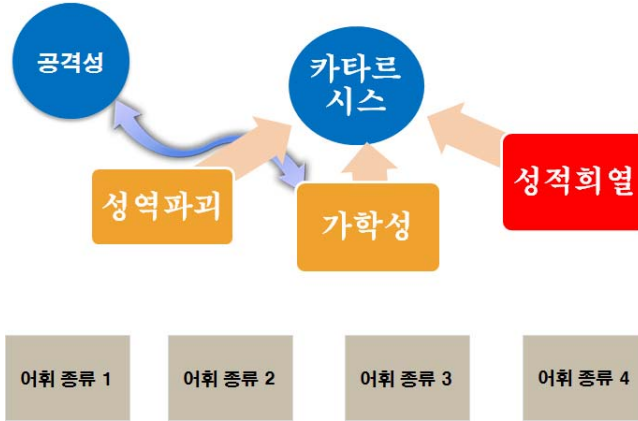
Rush Hour라는 영화에서 흑인 파트너의 욕을 따라서 “Whassup, my nigger”라고 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성룡의 에피소드가 소개된다. 욕은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욕설의 기능에 대한 기존의 주장처럼 언어적 겁박, 카타르시스 효과, 유대감 고취로 구분하는 것은 피상적인 차원의 단순한 기능분류라는 점에서 욕설의 특성을 핵심적으로 파악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요소는 욕설행위의 단순 기능으로 일대일 대응되는 것이 아니며, 욕설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세부 감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 기능이라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욕설은 구성어회에 따라 외적 기능인 공격기능과 내적 기능인 가학적 만족감, 성적희열, 성역과괴 만족감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카타르시스 기능도 같은 종류가 아니라 {가학적 만족감, 성적희열, 성역과괴 만족감}의 집합 중에서 여러 부분집합으로 구성된 복합적 기능으로 파악한다. 내집단을 결속시키는 연대감 고취 기능은 공격 기능과 카타르시스 기능의 공유를 통한 이차적, 간접적 기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1〉 욕설의 기능

- 외적 기능: 공격기능
- 내적 기능: 가학적 만족감
- 성적희열
- 성역과괴 만족감

〈그림 1〉 욕설의 구성도



이 주장에 대한 논거는 마지막 절까지 논의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아래 3, 4, 5절에서는 욕설어휘가 어떤 어휘적 특성을 갖는가를 고찰한다. 역사적 변천에 따라 구성 어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영어와 한국어의 어휘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생한 차이가 어떤 사회,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인지를 밝힌다.

III. 영어의 욕설어휘

미국에서 법률로 정하여 공중과 TV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곱 단어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Pinker 2007:360).

(6) shit, piss, fuck, cunt, asshole, cocksucker, motherfucker

다수의 사람들이 철학적, 인권적 의문을 제기한다. ‘fuck’, ‘shit’ 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인데 왜 미국정부가 국가권력을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사용하느냐 라는 의문이다.

1. 욱설의 종교성

영어 욱설의 역사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는 ‘욱설’, ‘욱하다’라는 표현 자체로서 ‘swear word’, ‘to swear’이다. 어원적으로는 ‘선서/맹세하다’의 의미에서 ‘욱하다’는 의미로까지 확장된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Hughes 1991, Pinker 2007).

(7) swear by ‘-를 걸고 선서/맹세하다’

=> swear to ‘-에게 보증하다’

=> swear at ‘-에게 욱하다’

현대 영어에서도 맹세하다는 의미는 살아있어서, 위의 세 가지 의미가 공존한다.

(8) a. I swear by my mother's good name that ...

b. Swear to me that everything you said about the fireflies is true.

c. He swore at me.

이 어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기독교 전통이다. 이러한 전통은 구약 성서에 여러 차례 반영되어 있다.

(9)

a.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who takes his name in vain.

출애굽기 20:7

b. You shall not swear by my name falsely, and so profane the name of your God: I am the Lord. 레위기 19:12

공통적으로 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마땅한 “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한 금기로 지켜졌으며 이를 어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정적 고통을 초래하여 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swear’가 욕하다는 의미가 추가되고, oh my god, Jesus Christ 등은 대표적인 욕설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거에는 언어에 힘이 있다고 믿었다. 주문이나 부적 등이 이런 전통의 흔적이다. 따라서 Goddamnit이라는 말을 듣는 청자는 매우 큰 정서적 고통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기독교 문화 외부의 언어 사용자에게는 영어의 ‘욕하다’와 ‘맹세하다’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문화에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oh my god, Jesus Christ 등의 번역 ‘오 신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등은 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2. 욕설의 변화

영어 욕설에 관한 연구를 요약해 보면 강한 금기성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욕설은 주문과 저주 등 종교적 배경을 근간으로 하는 욕설에서 성적 욕설과 인종적 욕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역으로 여겨지던 공공 매체에서 욕설 언어를 점점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욕설의 위력이 전에 비해 감소하여 허용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설명에서 그 변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종교적 색채가 사회에서 점차로 분리되고,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권위의식이 약화되고 사회계급의 붕괴로 비격식 문화로 바뀌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금기와 외설의 역사

1884년에서 1928년까지 발행된 OED 초판에는 ‘fuck’, ‘cunt’가 등재되지 않았다 Mohr(2013). 이런 단어가 언중들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학술적 가치를 위해서라도 언급되기에 그만큼 금기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인식한 당시의 사회의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파악된다.

20세기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James Joyce의 소설 Ulysses(1922)는 연재소설의 형태로 소개되었다가 1933, 1934년 재판으로 풀릴 때까지 1920년부터 금지 서적으로 묶여 있었다. 주인공이 사용하는 “fucking christ”, “the bastard fucker” 등 노골적인 표현을 그대로 담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Mohr 2013:240).

Ulysses가 주요 등장인물인 두 군인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욕설언어를 포함시킨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작품이 Lady Chatterley’s Lover(1928)이다. D. H. Lawrence는 이 작품에서 ‘cunt’, ‘fuck’ 등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소개하여 금기어를 사회적인 낙인으로부터 해방시켜 성을 사회가 건강하게 수용하고, 지성과 육체의 문화적 분리를 해소하는 것이 집필 동기의 핵심이었다. 물론 영국의 외설금지법의 영향으로 1960년에야 원본대로 출간이 허락되었다.¹⁾²⁾

허용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는 있었으나 1930년대 미국영화에서 금지된 단어로 아래의 리스트가 포함되었다 (Mohr 2013:232).

(10) God, Jesus, Christ, Hell, S.O.B., damn, Gawd

1) 참고로 한국어 번역본을 조사해 보니 지성과 육체의 통합을 위해 금기어를 사용한 작가의 의도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 12장 마지막 부분 주인공들의 대사에 나오는 ‘cunt’와 ‘fuck’은 ‘씹’, ‘빠구리하다/씹하다’ 정도로 번역되어야 하나 대부분 순화된 표현으로 나온다. 유명과 이인규가 영문학전공 교수임을 감안하면 점잖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Cunt! It’s like fuck then.”

“Nay nay! Fuck’s only what you do. Animals fuck. But cunt’s a lot more than that ...”

- a. cunt: 칸트 fuck: 성교 유명(1987), 동서문화사
- b. cunt: 그것 fuck: 성교 이은경(2010), 현대문화센터
- c. cunt: 씹 fuck: 성교 이인규(2003), 민음사

2) 한 심사자께서 COHA(Corpus of Historical American English)에서 ‘cunt’를 검색한 결과 1910년대에 1회, 1920년대에 2회만 발견되었으나 1930년대에는 49회가 검색되었으며 대부분 소설작품과 잡지에서 사용되었음을 알려왔다. 전반적으로 사용이 확장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1939년에 제작된 영화 *Gone with the Wind*의 마지막 장면에 렛 버틀러가 집을 나가면서 스칼렛 오히라에게 하는 대사에 욕이 포함되어 제작가가 \$5,000의 벌금을 물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이다. Damn이라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영화 출시 직전에 법이 개정되어 간신히 벌금을 면하게 되었다) (Mohr 2013:232).

(11)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현재는 공중과 TV를 제외하고는 작품의 일부로서 포함된 욕설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됨으로써 허용성의 정도는 크게 확대 되었다.

2) 어휘구성의 변화

위에 언급한 종교적 욕설의 퇴조와 성적, 인종적 욕설의 등장은 아래와 같은 표현들에서 종교적 어휘가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Pinker 2007:358).

- (12) a. Who the hell are you? → Who the fuck are you?
b. I don't give a damn. → I don't give a fuck/shit.
c. Holy Mary! → Holy shit/fuck!

또한 끔찍한 고강도의 욕이 아래와 같이 종교적인 성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형태로 바뀌는 것에서도 관찰된다.

(13) witch, devil → bitch → nigger

현대 욕설에서 여성과 소수 인종에 대한 욕설이 강도가 가장 강하다는 측면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에 대해 뒤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 현대 욕설의 특징

1) 강도와 빈도의 관계

조사 시점이 1986, 1997, 2006이었던 최근 20년간의 욕설의 사용에 관한 연구 Jay(1992), Jay(2000), Jay & Janschewitz(2008)를 요약 비교한 Jay(2009:156)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욕설어휘로 다음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빈도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어휘의 사용도 순위에서 20년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4) fuck, shit, hell, goddamn, Jesus Christ, ass, oh my god, bitch, sucks

종교적 전통에서 발생한 욕이 일부 남아 있고, 점차 성적, 신체적 욕설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욕설의 강도는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불리 단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Janschewitz(2008)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영어 욕설 중에서 ‘damn’, ‘fart’ 등은 비교적 낮은 강도인 반면, ‘cunt’, ‘nigger’ 등이 최강의 욕설인 것을 밝혔다.

위의 두 조사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은 최강도의 욕설이 오히려 자주 쓰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강도의 욕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검열의 결과 사용환경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연령과 욕설

욕설 언어의 사용은 10대에서 최대로 나타나고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Jay 1992, Thelwall 2008). 또한 성인으로 갈수록 욕설에 대해 느끼는 민감도가 커져 모욕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Jay 2009). 이는 성인으로 갈수록 인적 관계가 격식적, 공식적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는 점점 비격식적으로 변화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변화로서 동일한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 간의 선호되는 욕설 언어에 어휘적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어린이들에게 ‘baby’, ‘wimp’가 성인들보다 더 모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Jay & Janschewitz 2005)

4. 욕설과 전통성

욕설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와 연관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아래의 도표는 공공장소에서 허용도 차이에 비례하여 욕설의 강도가 약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Hughes 1991:11).

(15) 행위	어휘
공공장소에서 간신히 허용	fart
	piss
	shit
공공장소에서 불허용	fuck

그러나 이러한 대응관계가 욕설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아래의 대조를 살펴보면 반사회적 속성이 직접 욕설로 전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Hughes 1991:22).

(16) A	B
rapist	bastard
child molester	son of a bitch
plagiarist	cretin (바보)
embezzler	coward

반사회성을 기준으로 말하면 A군의 어휘들이 B군보다 정도가 높지만 욕설의 강도가 B가 높다. 이러한 성향은 반사회적 속성이 욕설에 즉각 반영되기 보다는 시간적, 전통성을 획득한 이후에 좀 더 감정적인 색채를 담아야 하는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5. 어휘적 분포

영어의 대표적인 욕설어휘를 Jay(2009:154)를 참조하여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 a. 배설기관: asshole
- b. 배설물: shit, crap, scum bag
- c. 성기, 성행위: prick, dick, cunt, fuck, fucking
- d. 불경표현: Goddamnit, Jesus Christ, oh my god
- e. 정신장애: retard(ed), moron, stupid
- f. 인종: nigger, nip, chink
- g. 금기 행위자: thief, slut, faggot, cocksucker
- h. 동물: bitch, ass, pig

IV. 한국어의 욕설어휘

욕설에 대하여 우리말 큰사전은 “남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나 저주하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상황에 따라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이한 욕설행위 자체에 그런 특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주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어 표현 중에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것에 대한 논의로 국한시키도록 하겠다. 이들은 대개 우리가 욕으로 인식하고 있는 쌍자음을 사용하는 어휘가 대표적으로 공중파에 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필자의 관찰에 의존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욕설로 어휘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 a. 배설기관: 똥구, 똥구멍
- b. 성기, 성행위: 자지, 보지, 좆, 씹, 씨팔(씹할), 씨팔놈/년, 좆같이, 좆까
- c. 장애:
 - 질병: 염병, 지랄, 문둥이, 병신
 - 정신: 미친놈/년, 바보, 멍청이
- d. 사회계급: 쌍놈/년, 놈, 년, 새끼
- e. 금기 행위자: 도둑놈, 화냥년, 잡년, (*잡놈)
- f. 동물: 개, 개새끼, 개 같은 년

1. 변화상황

이들의 특징과 변화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배설기관을 지칭하는 욕설은 주로 어린이들에게 국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성인들에게는 추억의 욕이다. 또한 성기 욕설에서도 ‘자지’, ‘보지’는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욕설이며, 청소년기 이후에는 ‘좆’, ‘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에 따라 성기와 관련된 합성어 욕에는 ‘씹새끼’, ‘좆까’ 등 후자 형태가 독점적으로 나타난다. 세번째 특징으로는 특정 질병에 관한 욕인 ‘염병’, ‘지랄’, ‘문둥이’ 등은 사용도 감소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해당 질병의 발생률 감소의 영향으로 욕설로서의 생생함과 현실감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사회계급과 ‘새끼’

‘새끼’의 경우 흔히 ‘어린 동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계급이라는 분류보다는 동물어휘로 처리할 것으로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계급적인 분류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신분사회의 붕괴로 ‘쌍놈’, ‘쌍년’이 신분에 관한 욕이 아니라 행위적 욕설로 사용되면서 위력이 감소되고 이 자리를 ‘새끼’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분사회는 붕괴되었으나, 연령과 사회적 위치에 따른 서열의식이 철저한 한국 사회에서 상대방을 ‘새끼’라고 지칭하여 ‘어린놈’으로 비하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힘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은 상대에게 (19)와 같은 욕을 하는 경우 십중팔구 싸움을

유발한다.

(19) 이 새끼가!

굳이 ‘새끼’가 동물이라는 어원적 특성에 기인한 모욕감이 아니라 ‘어린’ 것으로 비하하기 때문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욕설이 아닌 ‘자식’을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할 경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의 모욕감을 자극하는 것은 분명하다.

(20) 이 자식이!

물론, ‘자식’ 자체가 욕설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새끼’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V. 차이점과 공통점

1. 차이점

대표적 어휘집단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2〉

	성기/성행위	불경표현	배설물	배설기관	동물
영어	prick, dick, cunt, fuck, fucking	Goddamnit, Jesus Christ, Oh my God	shit, crap, scum bag	ass hole	bitch, pig, ass
한국어	씨팔놈/년, 썸새끼, 좆같이, 조까, 좆나개			똥구, 똥구멍	개
	인종	사회계급	장애	질병	행위
영어	nigger, nip, chink		retard, stupid, moron		thief, slut, fag, cocksucker
한국어		쌍놈, 쌍년, 놈, 년, 새끼	바보, 멍청이, 병신	염병, 지랄, 미친놈, 문둥이	도둑놈, 화냥년, 잡년

1) 불경표현

종교적으로 상이한 전통을 가진 문화적 속성 때문에 한국어에는 기독교적 불경표현이 없으며 이와 유사한 토속적 표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게도 영어 욕설의 번역 ‘오 하나님’, ‘신이시여’ 등은 모욕감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2) 질병, 장애 표현

정신적 장애를 나타내는 retard, stupid, moron과 바보, 멍청이, 미친놈은 두 언어에 공존하는 반면 신체적 장애나 질병을 표시하는 욕설에 차이가 관찰된다. 영어에서 간혹 cripple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한국어에는 아직 건재하다. 또한 영어 cripple의 경우 장애자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욕인 반면, 한국어의 ‘염병하네’, ‘지랄하고 있네’ 등은 일반화되어 질병과 관련없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물론 특정 질병에서 유래한 ‘염병’, ‘지랄’, ‘문둥이’는 사용도에서 점차 쇠락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영어와 유사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미친놈’, ‘병신’ 등은 여전히 애용되고 있다.

3) 배설물 욕설의 결핍

영어의 shit, crap, piss 등 배설물에 해당하는 한국어 욕설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영어를 비롯한 서양언어 대부분과 일본어 등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배설물을 기피한다는 점에서 욕설로 사용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듯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에서 ‘똥’, ‘오줌’을 언급하는 것은 점잖치 못한 것으로 ‘화장실 가다’, ‘소변을 보다’라는 완곡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욕설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중국어에도 동일한 예외성이 관찰되어 Kristof(1995)은 배설물에 대한 중국의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배설물이 비료로 매우 귀하게 쓰이고, 필요한 경우 돈을 주고 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유에서인지 우리 문화에서도 배설물을 크게 금기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귀한 자식의 이름으로 ‘개똥이’로 짓는 행위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영어 문화권에서 어떠한 이유라도 자식을 ‘dog shit’이라고 이름짓지는 못할 것이다.

4) 사회계급에서 유래한 욕설

한국어 욕설로 자주 등장하는 ‘새끼’, ‘쌍놈/년’, ‘놈/년’에 해당하는 욕설이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계급사회가 오래전에 붕괴를 맞았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와 같은 연령에 기초한 엄격한 서열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구조상 당연한 차이점이라 하겠다.

5) 인종적 욕설

반면에 영어에 존재하는 인종적 욕설이 한국어에는 없다. ‘피놈’, ‘쪽바리’ 정도가 가장 가까운데 존재감에서 유명무실하다. 이는 한국 사회의 소수 인종 집단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형성되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욕설이 높은 모욕감을 가지려면 해당 인종이 소수자로서 자의식을 갖고 차별을 느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집단적 차별의식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여 이런 의식의 형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2. 공통점

1) 사회적 소수자와 욕설

다음의 문장은 광복이전 일본에서의 경험을 회고한 소설가의 수필에 포함된 내용으로 1970년대 교과서에 실려 있던 내용이다.

(21) 아이들은 나를 조센징이라고 놀렸다.

처음 접한 내용으로서 ‘조센징’이 큰 욕설이라는 추론은 당연했다. 일제시대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역시 ‘조센징’은 욕설로 사용된다.

그러나 ‘조센징’이 조선인(朝鮮人)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의문이 생긴다. 왜 조선인을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홍길동의 운명이란 말인가.

‘Nigger’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이다. 목숨을 걸고 써야하는 욕이다. 어원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단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niggardly’(인색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고위직 인사가 해고당하기도 한다 (Pinker 2007:334, Mohr 2013:233). 높은 금기성 때문에 흑인을 지칭하기 위해 ‘black’이란 단어가 쓰이다가 이제는 ‘African American’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nigger’라는 단어는 스페인어 ‘negro’에서 수입된 것으로 ‘black’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원 ‘niger’, ‘nigr’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유어 ‘black’과 라틴풍 ‘negro/nigger’는 기본 의미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아래 예에서 보여주듯이 앵글로 색슨 고유어 보다는 라틴계 단어가 더 고상한 어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앵글로 색슨어휘	라틴계통어휘
a. cunt	vagina
b. cock	penis
c. sweat	perspire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nigger’의 금기성은 어휘적인 속성에서 설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실 위와 같은 사례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사회적 소수자는 일반인과 다르며, 다름은 비정상이라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일단 구분을 짓게 되면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적 의미가 덧붙여지는 것이 사회구조의 부정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수 집단은 사용되는 지칭어 자체의 의미와 무관하게 해당 지칭어에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 (23)처럼 인종적으로 사회적 다수자인 ‘white’에는 부정적 의미가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이지만, 미국 사회의 소수 인종에 대한 본래의 지칭어는 욕설로 바뀌어 변경을 가하게 된다.

(23) white

- nigger → black → African American
- Indian → Native American
- oriental → Asian
- nip → Japanese
- chink → Chinese

신체적 소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된다. 기존의 어휘는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욕으로 쓰이고 새로운 어휘가 도입되곤 한다.

- (24) a. 병신 → 장애인 → 장애우
- b. 봉사/소경 → 장님 → 맹인 → 시각장애인
- c.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성소수자로서 여성에게도 유사한 부정적 어감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들과 딸의 대조가 다음에 나타난다.

- (25) a. 아들놈이 이번에 장가갑니다.
- b. 아들놈이 이번에 사시 붙었어요.
- (26) a. 딸년이 이번에 가출했어요.
- b. ?딸년이 이번에 시집갑니다.
- c. #딸년이 이번에 사시 붙었어요.

남성형인 ‘아들놈’은 여러 상황에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딸년’은 (26a)와 같이 부정적 상황에서 욕설로서만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대조는 특정 언어를 떠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이 있다.

- (27) a. 도둑놈 < 도둑년 gigolo < whore
- b. 미친놈 < 미친년 bastard < bitch
- c. 잡놈 < 잡년 playboy < slut

상대되는 욕이라 하더라도 여성형이 욕의 강도가 더욱 세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소수자는 부정적 낙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사회언어학적 현상임이 분명하다. 다수가 사용하는 손이 ‘오른손(옳은)’이고 ‘바른손’이며, ‘right’가 ‘correct’이며, 왼손이라는 라틴어 의미에서 유래한 ‘sinister’는 ‘사악한’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었다. 다음 일본어 예문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는 의미가 동일한 어휘 ‘違う’로 나타낸다.³⁾

- (28) a. 私の意見は君のと違う° 내 의견은 네 것과 다르다.
- b. それでは約束が違います° 그러면 약속이 다릅니다.
- (29) a. 答えが違う° 답이 틀리다.
- b. 計算が違う° 계산이 틀리다.
- c. いいえ' 違います° 아니요, 아닙니다.

최근 우리말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어 국어학자들의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다르다’의 의미로 ‘틀리다’를 사용하는 현상은 언어학적으로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다름은 놀림의 대상이 되는 비정한 사회적 공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30) 다른 것(소수자) ⇒ 틀린 것/잘못된 것 ⇒ 교정/놀림의 대상

요사이 국제결혼의 증가와 노동력의 유입으로 외국인 가정이 늘고 이들에 대한 복지개선을 위해 행정부서가 신설되고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학교와 관청에서 다문화 교육에 열심이다.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면 다문화 교육이라 하여 따로 구분지어 교육받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여 ‘다문화 학생’이라고 소수자로 따로 구분되기보다 일반 학생이고 싶은 것이다. 예상하건데 머지않아 학교에 다음과 같은 욕설이 등장할 것이다.

3) 예문 (28), (29)는 한경자 선생의 도움을 받을 것임.

- (31) a. 야, 다문화!
b. 다문화 새끼

2) ‘개새끼’와 ‘son of a bitch’

신분사회의 붕괴로 ‘쌍놈’, ‘쌍년’ 등이 퇴조하고 ‘새끼’와 같은 욕설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국어 욕설 중에서 ‘새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만능 욕설로 개별적으로 사용되어도 욕설인데, 다른 욕설과 결합해서도 강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 (32) 이노무 새끼, 씹새끼, 개새끼, 빙신새끼, 미친 새끼, 멍청한 새끼

우리말의 ‘개새끼’와 영어의 ‘son of a bitch’는 각각의 언어에서 자주 쓰이는 욕설로서 유사성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개’라는 동물을 거론한다는 점, ‘자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둘 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욕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어원적으로 ‘새끼’는 동물에 적용되는 비속어인데 아래 (33a)와 같이 동물에 적용될 때는 암수 구분없이 사용되지만 사람에게 대한 욕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남성에 국한되는 특징이 있다.

- (33) a. 우리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암, 수 가능]
b. 이 도둑놈 새끼, # 이 도둑년 새끼 [남성만 가능]

물론 욕설로 사용되지 않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남녀 구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34) a. 귀여운 우리 새끼들!
b. 새끼들 키우느라고 인생 다 늙었어요.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어휘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새끼’는 ‘son’과 같은 관계적 명사라기보다는 ‘애송이/어린놈’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로 쓰인다. 아래 (35a)와 같이 관형어 ‘미친’, ‘멍청한’ 등의 수식을 받는

보통명사로 기능하여 영어와 달리 소유격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35) a. 미친 새끼, 멍청한 새끼
- b. 바보 새끼, 이노무 새끼
- c. 반장 새끼, 담임 새끼

또한 (35b)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치며 사용할 수 있는 욕설로서 가능한 것을 보면 ‘바보의 자식’이 아닌 그냥 ‘바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35c)의 경우도 반장, 담임을 직접 지칭하는 것이지 반장이나 담임의 아들을 욕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새끼’가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욕설적 의미만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새끼’ 앞에 나타나는 어휘도 기존 구조가 무시되는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 (36) a. 이노무 여편네
- b. 이노무 차를 어떻게 하지?

‘이노무’는 ‘이놈의’에서 유래했지만 위의 예는 ‘this damn/fucking wife/car’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상과 같이 피상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개새끼’와 ‘son of a bitch’는 이와 같이 의미구조가 매우 상이하며 욕설의 어휘적 기능으로서 모욕감의 대부분이 영어에서는 ‘bitch’에서 유래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새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엄격한 위계사회에서 상대를 애송이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강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3) 성행위 욕설

가장 큰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행위 욕설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다. 현재의 사회적 기준으로는 ‘씨팔놈’, ‘fuck’ 등의 어휘가 심한 욕설이라는 것이 매우 부조리해 보이고 커다란 역설로 보인다. ‘성교할 인간’이라는

의미가 왜 모욕적일까? 특히 장가 못가는 총각들이 많은 요즘 시대에는 ‘씨팔놈’은 오히려 능력에 대한 칭찬이고, ‘씹도 못할 놈’이 욕설이어야 마땅할 듯하다.

전통적으로 생리혈로 인해 여성의 성기는 부정하고 따라서 여성도 부정하여 성행위를 한 남성도 부정하게 여겨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율이 있기도 하였다 (김상윤 2002). 선박에 안테우는 것은 물론이고, 택시의 첫 고객으로 여성을 기피하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다. 어떤 이유에서건 일단 금기로 설정이 되면, 이와 관련된 행위는 금기행위로서 다음 단계로 욕설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에서도 ‘fuck’이 왜 욕인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Pinker(2007:362)는 ‘Fuck you’에 등장하는 ‘fuck’은 성교의 의미가 아니라, ‘damn’과 같은 의미라는 주장의 민간설을 소개하는데 이는 욕설로서 성행위가 가지는 아이러니 해소의 한 방법이라고 본다. 또한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않은 현대 이전의 시설과 이로 인한 위생상태의 열악함이 여성의 성기와 성행위를 낭만적인 것보다는 더러운 것으로 금기시한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말 ‘씨팔년’에 대해서도 같은 난관에 봉착하여 ‘씹+팔+년’으로 풀이하여 성을 파는 창녀의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씨팔놈’의 다른 발음이 ‘씨발놈’인 것에 착안하여 ‘씹+알’, 즉 ‘자궁에서 나온 놈’이란 뜻으로 풀고 있다. 이는 가당한 노력인 것은 분명하나 잘못된 분석이다. ‘씹할’이 ‘씨발’로 발음되는 것은 전라도 방언이고 전라도 방언의 한 특징은 아래와 같이 파열음 뒤에 나오는 ‘ㅎ’탈락 현상으로 이는 전반적 음운현상이다.

- (37) a. 약하다 → [야가다]
- b. 육학년 → [유강년]
- c. 밥하다 → [바바다]
- d. 씹할놈 → [씨발놈]

따라서 일단은 ‘fuck’과 ‘씨팔’이 성교행위라는 점은 인정하고 설명해야 한다. 더러움, 부정함에서 사회적 금기로 발전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성행위 자체는 금기가 아니다. 성행위는 일반인들이 누구에게나 본능적 행위가

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어휘를 발설하는 것은 금기행위에 해당한다. 성행위 현장을 남에게 들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기원은 짝짓기 경쟁이 치열하여 성행위시 무방비 상태가 되어 공격당하기 쉽다는 등의 이유에서 유래되었을지 알 수 없으나 수치스러운 것은 분명하고 다른 고등 동물도 숨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치스러운 사실을 발설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욕설이 된다는 논리관계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행위를 하는 무리에서 굳이 그 행위를 거론하는 것이 그리 큰 수치스러움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둑들 사이에서 상대를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욕설의 행위에 대한 전제로는 성행위 욕설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욕설행위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분노와 좌절감의 표출 및 상대에 대한 공격만을 주요한 기능으로 파악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관찰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절에서 이를 확장하여 내적 카타르시스 제공 기능, 상대에 대한 겁박 기능, 유대감 고취 기능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력을 보장하지 못한다. 카타르시스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수적이다. 먼저, 카타르시스는 감정적 원소가 아니고 기본 감정들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카타르시스는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된다. 또한 욕설의 내적 기능의 작동을 위해 외적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해 상대의 모욕감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금기어를 발성함으로써 얻는 심리적 희열과 만족감에 대한 부분을 욕설의 보다 중요한 기능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성역과 금기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욕설행위에 내재한 희열의 부분을 핵심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는 욕설 현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아래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하자.

첫째, 욕설행위에서 상대가 받는 모욕감의 정도가 곧 바로 행위자의 감정적 해소 수준을 결정짓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2언어의 욕설을 듣는 입장에서는 느끼는 모욕감의 정도가 모국어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욕설 행위자의 입장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된다. 외국어로 욕설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상대에 대한 공격의 측면에서는 외국어가 적절하겠지만 모국어로 욕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외국어에 유창한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이다. 상대의 모욕감보다 자신의 카타르시스(감정적 후련함)를 얻기 위한 기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사실이다.

둘째, 자신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 아닌 상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지만 상대가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의 욕설이 있다. 운전 중에 난폭 운전자에게 하는 욕설이다. 이 욕설은 전적으로 자기만족을 위한 목적에 국한된다.

세째, 욕설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성 어휘는 성적 농담과 마찬가지로 발성자에게 희열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열규(1997)는 욕설과 농담의 소재로 외국인, 바보/장애인, 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지적한다. 외국인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의 대상으로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이다. 약자이므로 크게 위협받지 않고 자신들과 구별되는 다른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맘껏 웃고 즐길 수 있다. 반면 성적 농담은 자기만족적 성향을 가진다. 흔히 성적농담의 주요 제작자 겸 소비자인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성적농담을 통해 욕구불만을 해소하거나 비밀스런 희열을 맛본다. 스토리의 전개는 대개 남성의 판타지나 환상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여성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성 못지않게 성을 회귀하고, 성행위를 즐긴다는 식이다. 류정월(2007)의 구비문학작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중심적 여성상의 특성이 확인된다. 성적농담의 일화가 강간으로 시작하여 화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성은 남성 이상으로 성행위를 즐기는 것으로 묘사된다. 등장 인물들의 성향을 남녀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를 일관되게 보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류정월 2007:401):

(38) 남성	여성
유혹자	피유혹자
적극성	소극성
응시자	응시대상
성적쾌감의 부재	성적쾌감의 과잉

널리 회자되는 대부분의 성적농담에서 이런 특성이 확인된다. 아래 (39)는 모 대학에서 교수가 수업시간에 PPT로 다뤄 문제가 되었던 농담이다.

(39) 진정한 음악 애호가란 무엇일까? 욕실에서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며 콧노래를 부른다고 해 보자. 이때 남자가 큰 열쇠구멍에 눈이 아니라 귀를 갖다 대면 진정한 음악 애호가다.

여성의 나체를 남성의 관찰의 대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여성에게는 성적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유발시킨다. 남성에게는 그려진 장면을 연상하고 이를 여성들과 공유함으로써 성적 희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40)에 소개한 영어의 성적농담에서는 여성이 성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남성의 환상을 만족시켜주고 있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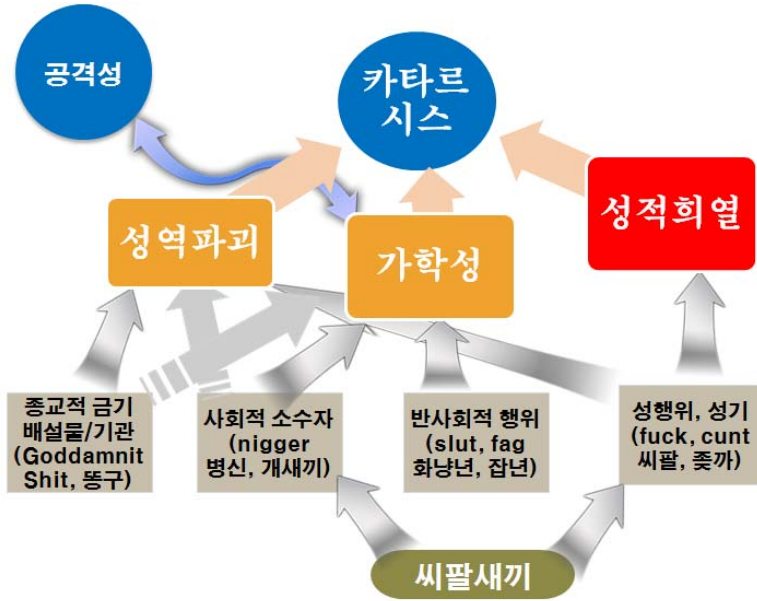
(40) A man is in a hotel lobby. He wants to ask the clerk a question. As he turns to go to the front desk, he accidentally bumps into a woman beside him and as he does, his elbow goes into her breast. They are both quite startled. The man turns to her and says, "Ma'am, if your heart is as soft as your breast, I know you'll forgive me." She replies, "if your penis is as hard as your elbow, I'm in room 1221." (laughline.com)

이상과 같이 성적 욕설에서 성적 농담에서 느끼는 희열과 유사한 감정을 얻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VI. 욕설어휘와 욕설의 기능

2절에서 제안된 욕설의 기능과 5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욕설어휘 종류별 기능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가 느끼는 내적 만족감은 성역과피감, 가학적 만족감, 성적희열이다.

〈그림 2 : 욕설의 어휘와 기능〉



실선 화살표는 해당 어휘가 가리키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표시한다. 점선 표시는 해당 어휘의 일부가 강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전체가 약한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를 표시한다. 연결된 감정이 합해져 전체 카타르시스의 강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같은 강도라면 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끌어낼 때 가장 강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⁴⁾ ‘도둑놈’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가학적 만족감만 제공하므로 강도가 약하다. ‘병신’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는 가학성만을 제공하고 ‘nigger’와 같이 금기성을 갖추게 되는 경우 성역파괴감을 포함하여

4) 위의 <그림 2>는 개략적 개념의 소개를 위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하기를 추천한다. 해당 분류 어휘들에 따라 편차가 있어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동일한 어휘라도 상대에 따라 화살표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중생이 친구 사이의 대화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미친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가학성에 성역파괴감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강도가 높아진다. 종교적 금기어도 같은 문화 내에서도 집단별로 가학성을 일으킬 정도의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성역파괴에만 머물 수도 있다. ‘씨팔놈’과 같은 성행위 어휘는 성역파괴, 성적희열에 더하여 약한 가학성을 띠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약한 가학성에도 불구하고 욕설의 강도는 유지되고 욕설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씨팔 새끼’는 ‘새끼’에서 강한 사회적 소수자 어휘가 포함되어 강한 가학성을 추가하게 된다. 한편 ‘씨팔’의 경우 공격적인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학성은 없고 성역파괴와 성적희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에 욕설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된다는 통계는 부모의 통제와 성역에 대한 도전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또한 이 시기가 성적 호기심이 최절정인 연령이라는 사실과 긴밀히 연결된다. 또한 이 시기는 또래 집단의 소속감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욕을 통해 성역을 파괴하거나 약자에 대한 집단적 왕따에 가담하기도 한다. 이를 <그림2>의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성역파괴 심리, 가학성 및 성적희열 희구 심리가 결합되어 욕설 사용욕구가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Ⅶ. 맺음말

논의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욕설어휘의 범주는 종교적 금기어, 배설기관 및 배설물 지칭어, 반사회적 행위자 지칭어, 사회적 소수자 지칭어, 성기 및 성행위 지칭어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소수자와 성행위 욕설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 속성으로 나타나지만, 개별 문화의 특성이 종교적 금기어와 배설물에 대한 어휘 선정에 반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욕설 행위의 동인은 상대에 대한 공격 외에 성역파괴의 통쾌감, 가학적 만족감, 성적희열이라는 세 가지 감정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욕설언어의 형성은 금기성과 가학적 만족감을 기초로 성적희열이 추가되는 양상을 띤다. 이에 따라 종교적 금기어와 배설기관 및 배설물은 금기

어로서 성역파괴의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및 반사회적 행위자에 대한 어휘는 가학적 만족감의 대상으로; 성행위 어휘는 성역파괴, 가학적 만족감 및 성적 희열의 대상으로서 욕설 언어를 구성한다.

❖ 참고 문헌

- 김상윤, 「욕설의 특질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4:271-290, 2002.
- 김열규,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사계절, 1997.
- 류정월,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25:391-418, 2007.
- 유영, 『채털리 부인의 연인 (역)』, 동서문화사, 1987.
- 이은경, 『채털리 부인의 연인 (역)』, 현대문화센타, 2010.
- 이인규, 『채털리 부인의 연인 (역)』, 민음사, 2003.
- 이점식, 강기수, 「욕의 교육인간학적 기능」 『석당논집』 50:537-559, 2011.
- BROWN, R. and A. GILMAN, The pronouns of power and solidarity, In SEBEOK, T. A. (ed.) *Style in Language*, MIT Press: 253-76, 1960.
- BROWN, P. and S.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CLARK, H, *Us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HUGHES, G, *Swearing*. Blackwell, 1991.
- JANSCHWITZ, K, Taboo, emotionally-valenced, and emotionally-neutral word norm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40: 1065-1074, 2008.
- JAY, T, *Cursing in America*, John Benjamins, 1992.
- JAY, T, *Why We Curse*, John Benjamins, 2000.
- JAY, T, The Utility and Ubiquity of Taboo Word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4:153-161, 2009.
- JAY, T and K. JANSCHWITZ, Children and adults disagree about the “badness” of taboo words,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Meeting, Los Angeles, 2005.
- JAY, T and K. JANSCHWITZ, Filling in the emotion gap in linguistic theory: Commentary on Potts' expressive dimension, *Theoretical Linguistics* 33:215-221, 2007.
- JAY, T and K. JANSCHWITZ, The pragmatics of swearing,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4: 267-288, 2008.
- KRISTOF, N. On Language; Too Polite for Word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ep. 24), 1995.

- MOHR, M. *Holy Sh*t: A Brief History of Swear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PINKER, S, *The Stuff of Thought*, Viking, 2007.
- POTTS, C, The expressive dimension, *Theoretical Linguistics* 33:165-198, 2007.
- STEPHENS, R, J. ATKINS, A. KINGSTON, Swearing as a response to pain, *Neuroreport* 20:1056-1060, 2009.
- STEPHENS, R. and C. UMLAND, Swearing as a response to pain - effect of daily swearing frequency, *The Journal of Pain* 12.12:1274-1281, 2011.
- THELWALL, M, Fk yea I swear: Cursing and gender in a corpus of MySpace pages, *Corpora* 3:83-107, 2008.

❖ ABSTRACT

On the Development of Swear Words

Yoon, Jae-Hak

Examining swear words found in Korean and English, we aim to answer the following two questions: (i) ‘What words develop into swear words?’ and (ii) ‘Why they do?’

The utility of a swear word is frequently recognized as intimidation directed towards an opponent, emotional catharsis, and solidarity building among in-group members (Jay 1992, 2000, Kim 1997). We seek to go beyond this simple enumeration of possible functions of swearing and suggest an underlying mechanism at work to explain how these functions are achieved and why only certain types of words are employed in this pursuit.

A close examination reveals that a swear word must contain either taboo or sadism as an essential component. Sexual pleasure adds another dimension to the basic components. Thus, if an expression contains a subset of the component set {taboo, sadism, sex} in its semantics, it becomes available for swearing (one of the underlined components must be included in the set). For example, many religiously sacred expressions and words for excretion are common swear words as they violate social and religious taboo. On the other hand, words referring to social minorities are a convenient target for sadism. Furthermore, words describing sexual activity contain all three components, violating social taboo, evoking sadism, and giving the initiator guilty sexual pleasure.

A combination of the components can produce an emotional effect called catharsis for the initiator. When directed towards others, these components, especially taboo and sadism, can be exploited as a verbal attack, an intimidation, preceding or replacing a physical attack. However, solidarity building is analyzed as a secondary function of swearing, achieved by sharing a sense of accomplice when in-group members behave badly together, such as violating social taboo and committing sadism.

Key Words

욕설어휘, 욕설어휘의 형성, 금기, 터부, 욕설의 기능
swear words, development of swear words, swearing, taboo words, function of
swearing

논문접수일: 2014. 05. 09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